

아리스토텔레스의 언어와
정치: 『수사술』을 중심으로
Language and Politics in Aristotle:
-Focusing on Interpreting On
Rhetoric-

< 대표저술 >

「소양 조용은과 한나 아렌트의 혁명이론」, (2005).

「한나 아렌트 정치철학에서 선악의 문제」, (2005).

「한나 아렌트의 '새로운 시작' 개념과 그 변형」, (2007).

관심분야 : 정치철학, 한국정치

E-mail : hongwp@hufs.ac.kr

•홍원표(Hong, Won-pyo)

•학위취득대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현직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논문접수일 : 2008년 3월 20일

논문심사일 : 2008년 4월 2일

게재확정일 : 2008년 4월 16일

아리스토텔레스의 언어와 정치: 『수사술』을 중심으로 *

<국문요약>

수사술은 말을 사용하는 동물의 정치적 위상을 고양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조작적 또는 상투적 언어로서 ‘수사술’이란 일반적인 사용을 극복함으로써 정치적 실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적 정치와 그 현대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수사술』을 분석하였다.

첫째, 수사술 논쟁의 정치존재론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삶에서 수사술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하였다. 둘째, 에토스, 파토스, 그리고 로고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감정의 인지적 신념뿐만 아니라 진정한 로고스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인식론적 입장을 부각시켰다. 셋째, 공공연설의 윤리적 정향을 고찰하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정당한 공존을 강조하였다. 넷째, 정치적 심의와 정치적 판단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를 밝혔다.

이러한 분석결과, 오늘날 정치와 언어의 연계성에 대한 이론적 세련화 유형은 『수사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저서는 오늘날에도 수사술적 정치를 이해하고 실현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주 제 어]

아리스토텔레스, 수사술, 설득수단, 공공연설, 심의, 판단

I. 들어가기: 정치학 텍스트로서 『수사술』

우리의 삶은 활동적 삶과 정신의 삶으로 구성되며, 언어행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정치행위는 언어를 매개로 인간들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나와 자아 사이의 소리 없는 대화인 사유 활동도 언어를 매개로 하기 때문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전자는 ‘소리 나는’ 언어행위이고, 후자는 ‘소리 없는’ 언어행위라는 점일 뿐이다.¹⁾ 인간적 공존을 가능케 하는 정치는 의견의 형성에 좌우되기 때문에, 정치와 언어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정보화시대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혼란스럽게 분출되는 정치적 수사들로 인하여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이러한 양상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진정한 정치가 정착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수사적 정치’²⁾는 상당한 정도로 그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지만, 그것의 발현양상이 바람직하게 표출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별도의 문제일 것이다.

물론 『수사술』에서는 그리스 시대 공공연설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오늘날 의사소통 양태는 그리스 시대의 시공간적 제약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정치행위자들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과거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시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

* 이 논문은 2005년도 학진 인문사회지원심화연구(BS0010)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학술회의에서 토론자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준 제시한 중양대 박성우 교수에게 감사함을 표시한다.

1) 이에 관한 내용은 홍원표(2004: 91-115)를 참조하시오.

2) 버크(Richard J. Burke)는 베버의 정치 이상형을 차용하여 도덕원리의 적용으로서 정치, 홉스의 정치, 수사술로서의 정치(politics as rhetoric)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수사적 정치’ 개념은 수사철학의 일부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모든 인간의 상징적 활동이란 특별한 태도를 택하도록 다른 사람들(청중)을 설득시키려는 어떤 사람(화자)의 상당히 의식적인 시도로 가장 잘 이해되는 입장이다(Burke 1982, 45).

이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시민을 상대로 제시하는 연설에 나타난 정치적 수사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분출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사술』은 속빈 말이나 기만에 가까운 정치언어로 혼탁해진 한국정치를 극복하는데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인간의 삶과 언어의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저작들 가운데 정치학도들에게 많은 통찰을 제공하는 저서는 『정치학』이다. ‘정치적 동물’(*zōon politikon*)과 ‘말을 사용하는 동물’(*zōon logon ekhon*)이란 문구는 언어와 정치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두 정의는 외형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와 언어의 연관성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³⁾

『정치학』에서는 언어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논리학』, 『수사술』, 그리고 『시학』에서는 언어 개념과 기술을 중점적으로 밝히고 있다.⁴⁾ 『정치학』과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정치와 윤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수사술』 역시 정치학 텍스트이다(Elden 2005, 292). 이 저작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쟁 · 가정관리 · 수사 기술은 인간의 최고선을 연구하는 학문인 정치학에 포함되기”(Aristotle 2004, 4)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사술』을 중심으로 정치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조명할 것이다. 첫째, 수사술과 정치의 관계를 폄하시키는 아리스토파네스와 플라톤의 비판을 고찰한다. 둘째, 세 가지 설득수단의 특징을 고찰하되 이성과 정념의 상호 공존을 부각시킬 것이다. 설득의 전달 가능성을 높이는 인식적 차원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셋째, 설득적 공공연설을 공동선과 사적 이익

3)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 제2장에서 말과 행위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행위 개념에서 언어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4) 언어 개념과 언어 기술에 관한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McKeon(1946, 193-206; 1947, 21-50)을 참조하시오.

의 긴장이란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정치적 삶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부각시킨다. 넷째, 정치적 심의와 판단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정치적 심의가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수사적 정치의 현실적 함의를 제시한다.

II. 수사술 논쟁: 인간의 정치존재론적 위상

인간의 언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적 탐구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동물은 쾌락이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인간은 언어를 통해 유용하거나 해로운 것 또는 정의나 불의를 표현할 수 있다(Politics, 1253a10-14). 언어는 인간적 완성을 가능케 하는 중요 수단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언어 개념과 언어기술에 대해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언어는 이론적 학문, 실천적 학문, 그리고 생산적 학문(시학)의 주제이다. 언어의 이론적 사용은 주제 표현의 적실성과 연계되며, 언어의 실천적 사용은 욕망에 대한 언어나 이성의 도덕적 통제로 발휘하는 효과와 연계되고, 언어의 시적 사용은 예술 작품의 특성과 연계된다.⁵⁾ 이와 같이, 그는 자신의 철학에서 언어 문제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는 ‘수사술’⁶⁾ 논쟁을 개략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정치에

5) 언어의 성격과 용례에 따라 세 가지 언어기술이 결정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을 개별적인 기술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언어의 작동뿐만 아니라 언어 기술을 분석하였다. 그는 언어의 용례에 대해 처음으로 성찰한 철학자는 아니지만 언어의 사용 목적을 분화시키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치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즉, 언어는 시적 구성, 수사적 설득, 논리적 논증이란 목적에 기여한다.

6)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이한 정의를 제시한다. ‘수사술’은 각각의 특별한 경우 유용한 설득수단을 파악하는 능력이다(Rhetoric, 1355b25-6). 또한 그는 수사술이 기술(*techné*)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

있어서 언어행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수사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파네스와 플라톤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 논쟁의 흐름을 정리한다. 이 논쟁은 이후 서구의 전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 위력을 가지고 있다.

1. 아리스토파네스의 정치적 · 도덕적 비판

아리스토파네스는 정치적 · 도덕적 근거(Murphy 1938, 69), 정의와 정치공동체라는 명분으로 수사술을 비판하였다(Nicols 1987, 658). 그는 또한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아니라 대중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폄하하고자 소크라테스를 수사학자라고 불렀다(Strauss 1966, 5). 이러한 지적은 아리스토파네스가 언어정치의 훌륭한 선생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언어정치를 통해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였는가? 그는 희곡을 통해 소피스트들을 공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교육자들과 ‘공공연설의 선생들’을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 당시 수사술은 새로운 교육의 일부를 형성하였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새로운 수사술 훈련을 받은 화자가 배심원을 기만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당혹스럽게 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수사술 원리에 실질적으로 친숙했으며 자신의 이념을 제시하려고 새로운 기술을 종종 사용하였고(Murphy 1938, 69), 대중에 대한 인기 또는 영향력을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구름』에서 수사술 비판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수사술의 옹호자인 스트레프시아데스(Strepsidades)는 빛을 갓지 않기 위해 수사술 선

은 입장을 택할 경우 이러한 두 용어를 조화시킬 수 있다. 즉 “우리는 수사술을 통달할 경우 유용한 설득수단을 발견하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Corbet 1984, 15).

생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으며, 수사술을 배워 의도한 목표를 성취한다. 수사학자는 구름과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형태를 바꾸기 때문에, 아리스토파네스는 수사술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정의와 법을 손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스트레프시아데스는 “아들놈 덕택에 지출만 늘었어, 빚투성이야”라고 혼자 말하면서 빛을 갓지 않을 방법을 강구하다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돈만 주면 옳든 그르든 변론으로 재판에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준단다”(Clouds, 95). 그는 “그들에게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는 거야. 그 하나는 정도(正道)이고 다른 하나는 권도(權道)라는 건데, 이 가운데 하나인 권도는 아무리 불리한 소송이라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야”(Clouds, 110-114)라고 말한다. 이후 스트레프시아데스는 정론과 사론의 대화에서 사론의 승리를 목격하고, 소크라테스에게 변론술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다.

스트레프시아데스는 자식인 페이답피데스를 통해 채무를 갓지 않을 수 있게 되었지만, 새로운 이론을 배운 자식이 아버지를 구타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소크라테스 때문에 신을 버리다니, 난 돌았어”라고 후회하며 소크라테스의 집에 불을 지른다. 그 순간 소크라테스와 제자들은 “사람 살려, 타죽어, 타죽어”(Clouds, 1505)라고 외치면서 집을 뛰쳐나온다. 스트레프시아데스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신을 모독했으니 그런 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Clouds, 1505-10)라고 말한다.

이 희곡은 수사술에 대한 아리스토파네스의 정치적 · 도덕적 비난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그는 수사술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마저도 웃음거리로 만들으로써 정치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였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사론(邪論)을 소피스트들이나 철학자들과 연계시키면서 소크라테스를 그 스승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제우스를 소용돌이로 대체하고 신을 부정한 소크라테스가 공동체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공동체라는 명분으로

소크라테스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소크라테스를 징벌하고자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소크라테스를 제물로 삼았다.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술의 진정한 위상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술』 서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술을 비판한다.

2. 플라톤의 비판: 적극적 부정에서 비판적 공존으로

여기에서는 수사술에 대한 플라톤의 입장을 『고르기아스』와 『파에드로스』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플라톤은 한편 수사술을 사라지게 하는 ‘마술사’로, 다른 한편 제거할 수 없는 무엇으로서 인식한 채 수사술의 위험성을 언급한 강력한 신화 창조자로서 묘사된다(Ramsey 1999, 249). 『고르기아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수사학자인 고르기아스와 대적한다. 이 대화편에서 플라톤은 대부분 수사술을 퀘변술이나 공공연설의 실체와 동일시하고 있다. 고르기아스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Gorgias, 460e-461a). 소크라테스는 이를 통해 수사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을 철학적인 근거로 확장시키면서 수사술이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수사학자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자신의 청자들에게 진정 좋은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 수사술은 선을 지향하기보다 단순히 쾌락만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르기아스』에서 의술의 대응쪽은 정의이며(464b8), 수사술이 정의와 관계되는 것과 같이, 요리술은 의술과 관계된다(465c1-3). 즉, 정의의 거짓된 형태인 수사술은 의술의 거짓된 형태인 요리술로 비유된다. 이와 같이, 『고르기아스』는 수사술에 대한 플라톤의 부정적 설명을 아주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언어와 정치: 『수사술』을 중심으로 233

(Brogan 2005, 164).

이러한 부정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로고스의 우위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연설에 있어서 탁월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변증술을 가장 기본적인 학문으로 이해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점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변증술과 수사술을 동일한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변증술이 수사술의 대응쪽”이라는 『수사술』의 첫 문장에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⁷⁾ 두 마리 말이 끄는 전차를 모는 전사의 신화는 고귀한 영혼으로 인도하려는 말과 비천한 영혼으로 인도하는 말의 불가피한 공존을 강조하고 있다. 플라톤은 철학과 수사술의 불가피한 공존을 인정하였을 것이다.⁸⁾ 수사술을 손바닥으로, 그리고 변증술을 움켜쥔 주먹으로 비유한 것은 양자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묘사이다(Remer 1999, 56).

소크라테스는 『파에드로스』에서 당시의 수사술, 특히 공적인 연설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의 비유에 따르면, 이들은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전투에서 적에 대항하여 사람들을 수송하고자 노새를 사라고 무지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한다(Phaedrus, 260b-c). 소크라테스는 수사술을 비판하고 있지만, 수사술의 문제는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항상 제기

7) ‘antistrophos’는 통상 ‘대응쪽’으로 번역된다. ‘상관물’이나 ‘대등한 것’으로 번역되기도 하며, ‘반대’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가 『고르기아스』에서 설명한 진정한 기술과 거짓된 기술의 비유를 생각하면서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 대응쪽에 대한 입장을 다음 내용을 통해서 이해된다. 극에서 합창단은 오른 쪽으로 춤을 추는 동안 ‘strophē’(악절)를 노래하고, 왼쪽으로 춤을 추고 가는 동안 ‘antistrophē’(응답악절)를 노래하며, 정지해 있는 동안 서정시를 노래한다. 이 외에도 수사술은 변증술의 옆 가지이며, 변증술의 일종이라는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McAdon(2001), 노회천(2005)을 참조하십시오.

8)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Ramsey(1999, 259-260)를 참조하십시오.

234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집

된다. 수사술의 진정한 조건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수사학자는 개개인의 영혼과 그 다양한 형태, 그리고 이들에 적합한 연설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Phaedrus*, 271a-272b).

소크라테스는 글쓰기란 본질적으로 잘못된 로고스라고 비난하고 있다. 글쓰기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말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연설도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진정한 수사술은 사적인 연설에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실제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연설과 같다. 그러나 플라톤은 글쓰기와 공공연설을 암묵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물론 플라톤은 비교적(秘敎的) 저술기법에 입각해 독자들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플라톤은 철학의 대응적으로 수사술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술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고, 수사술의 잠재적인 부정의에 대한 국가의 의혹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는 선함, 고귀함, 정의로움에 관한 시민들의 공통된 견해에 부합되는 수사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의 수사술은 플라톤의 전통에 압도되어 빛을 발하기 어려웠지만, 정치존재론의 관점에서 인간의 정치적 위상을 실천하는 정신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실천과의 연계 고리를 마련하고 있다.

III. 설득수단들(pisteis)의 상호 연계: 이성과 정념의 공조

인관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전달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화자의 말이 청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수단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설득수단에 관한 내용은 언어 행위에 있어서 인식론적 차원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사술은 어느 특정한 경우에 유용한 설득기술을 준수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Rhetoric, 1356a26-28). 설득은 성품(ethos), 감정(pathos), 논리적 설명(logos)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정에서 정념의 자극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술을 비판한 이전의 사상가들이 수사술에 본질적인 것인 ‘증거’⁹⁾를 무시한다고 지적하였다. 설득수단은 ‘증거’로 번역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신념을 갖게 하는 원인이나 이유로 생각하였다. 말을 매개로 한 설득 양태들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연설자의 개인적 성품에 좌우된다. 두 번째는 청자를 어떠한 정신의 틀로 끌어들이는 능력, 즉 감정에 좌우된다. 세 번째는 명백한 진리 또는 증거에 좌우된다.

수사술 비판자들은 화자에 의해 드러나는 훌륭한 성품이 그의 설득 능력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반대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성품을 가장 효율적인 설득수단으로 상정한다. 화자의 성품은 청자들에게 말의 요지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화자가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연설을 할 때마다 설득은 성품에 의해 실현된다. 화자가 신뢰할만한 사람으로 보인다면, 청자는 화자의 주장들을 참으로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화자는 실천적 지혜, 미덕, 호의를 보여야 한다(Rhetoric, 1378a6-9). 실천적 지혜와 미덕은 성품의 요소이며, 호의는 감정의 요소에 해당된다. 화자가 고매한 성품이나 호의를 갖지 않은 채 실천적 지혜만 드러낸다면, 청자는 연설자의 목적이 선한가에 대해 의심할 것이다. 그리고 청자가 호의를 갖지 않은 채 실천적 지혜와 고매한 성품만을 드러낸다면, 청자는 화자가 최선의 제안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다.

9) ‘pistis’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정확하게 사용할 경우 청자에게서 신념이라 불리는 정신 상태를 유도할 수 있는 원재료이다... 둘째는 사람이 자료를 활용하고 문제에 형태를 부여하며, 청자에게서 정신 상태를 발생시키는 방법이나 기법이다. 마지막 의미는 청자에게서 나타나는 정신 상태이다.”(Lienhard 1966, 446)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감정은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에 대한 해박한 설명은 『수사술』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연설이 청중의 감정을 자극할 때, 설득은 청자를 통해서 나타난다. “감정은 언어의 에토스와 파토스차원 덕택에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주관적으로 전달 가능하며, 비판 가능하다”(Abizadeh 2002, 290). 기쁘거나 우호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판단과 고통스럽거나 적대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판단은 다르기 때문에, 감정은 설득수단의 주요 요소이다. 감정은 우리의 판단을 수정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에서 감정의 역할을 곡해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명제를 상정한다. 첫째는 화자가 청자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감정을 고무시킨다는 명제이고, 두 번째는 청자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감정을 고무시킨다는 명제이다. 수사적 설득의 목적은 행위나 실천적 결정이 아닌 판단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명제는 허위이다. 도덕 교육이 수사술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두 번째 명제는 허위이다. 화자는 추론의 일관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다.

설득수단을 통달한 사람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인간적 성품이나 선, 그리고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술에 있어서 이성과 정념의 연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는 설득에 있어서 정념의 사용을 강조하였지만 자신이 원래 비판하였던 법정 수사의 정념 사용과 구별하고 있다. 다른 수사학자들과 달리, 그는 정념의 환기를 연설 자체의 주장과 연계시키고 있다. “연설자는 자기의 연설 내용을 논증적이고 믿을만한 가치가 있게 하려고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품을 올바르게 보이게 하고 결정을 내리는 청중들을 올바른 정신 상태에 있게 해야 한다”(Rhetoric, 1377b20-25).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념의 대상과 근거에 입각해 정념을 분석함으로써 정념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화자는 성품을 드러냄으로써 청자의 정념을 고무시킬 수 있다. 청자들은 화자의 연설 자체를 통해 화자의 성품을 이해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명민한 화자의 연설이 목적을 숨길 수 있다는 일반적인 두려움을 언급함으로써 화자가 연설에서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범위에 관심을 가졌다. 화자가 설득적일 수 있으려면, 그는 자신의 조언이 정의에 기초해 있으며 청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야 하고, 자신의 칭찬이 고귀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고전적 수사의 본질적인 부분은 탐구뿐만 아니라 주장으로서 성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Ronald 1990, 41).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적 영역 밖에서 배양된 개인적 성품이 공적으로 성품할 훨씬 더 훌륭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이 수사에 관한 자신들의 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연설자에 의해서 노출된 개인적 선이 그의 설득 능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그의 성품은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불릴 수 있다.”(Rhetoric, 1356a10-14)

정념에 관한 논의도 세 가지 설득수단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수사술』 제2권에서 다양한 형태의 감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분노, 평온, 우정과 적대감, 공포, 염치와 몰염치, 친절과 불친절, 연민과 분개, 시기, 경쟁심 등을 화자의 성품과 관련하여 언급하였다. 첫 번째 정념인 분노에 대한 설명에서 화자의 성품, 청자의 정념, 로고스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입장을 검토한다.

“분노는 변명 없이 자신과 관련된 것 또는 친구와 관련된 것에 대해 가해지는 의식적인 무시로 인해 발생한 의식적 복수의 충동이며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Rhetoric, 1378b31-32). 화자는 청자의 분노를 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우받는 것을 정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화자의 수사는 무시당한 사람이 주시하는 데 실패한 측면을 제시해야 한다. 화자는 이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에 기초한 정의감을 보여줘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화자는 청자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손상에 대응하는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모욕과 복수가 분노한 사람을 소진시킨다면, 그는 자제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분노는 독립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와 복수를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무시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수단을 통해 분노를 완화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화자는 무시당함에 직면하여 분노한 사람(청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옹호하라고 정의와 고귀성을 호소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수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화자의 수사 때문에, 분노한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편의적으로 지키는 것에서 벗어나 고귀성과 정의에 대한 차원 높은 고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편이성이라는 수단보다 차원 높은 고귀성에 호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화자는 청자에게 촉구하는 행위의 결과에 세심하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경우 청자를 설득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화자는 정의와 고귀성에 대한 호소뿐만 아니라 사리분별을 청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화자는 정념을 촉발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주장에 그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수사술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청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성품과 감정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것들은 간접적인 도덕적 설득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화자가 설득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설득수단만으로는 어렵다. 즉, 화자의 성품과 청자의 감정이 합리적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설득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화자는 연역이란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품과 청자의 감정을 연결과 연계시켜야 비로소 설득에 성공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수사술적 연역이라고 불렀다.

‘enthymeme’(수사술적 연역)라는 용어는 전통적으로 사유와 감정의 장소를 의미하는 ‘thymos’에서 유래하였다(Nichols 1987, 667). 수사술적 연역은 “단순한 논리적 추론 이상의 무엇”(Grimaldi 1972,

69-70)을 의미하며, 변증술적 연역과 달리 성품 · 감정 · 로고스를 모두 포함한다. 수사술적 연역을 구성하는 자료는 이익 · 정의 · 고귀성에 관한 공통 의견뿐만 아니라 청자들의 정념, 성품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변증술적 연역(*sullogismos*)과 수사술적 연역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양자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도 명료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변증법의 대응짝이며 부산물인 수사술을 성품의 연구로 규정하였다.¹⁰⁾ 그에 따르면, 수사술은 대응짝이란 개념을 통해 고도의 정밀성과 확실성을 목표로 하는 지식 탐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요리술과 같은 아첨술도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논의의 상이한 기술(논증술, 수사술, 변증술)에서 이론적 발전 사이의 비교는 매우 두드러진다. 그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전달하는 수단인 세 가지 표현 양태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McAdon 2001, 145). 수사술적 연역에서는 성품과 감정이란 용어가 사용되지만, 논증과 변증술에 관한 논의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이들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는 논의의 참여자라는 측면에서 차별화하고 있다. 참여자들을 보면, 논증에 있어서 논증자와 철학자가, 변증술에서는 대가, 선생, 그리고 학생이, 그리고 수사술에서는 화자와 시민

10) 변증술과 수사술의 유사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의해서 구체화될 수 있다. 특정한 종에 속하지 않은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수용된 문장들(*endoxa*)에 의존하며, 어떤 학문들의 원리에 의존하지 않고, 대립의 두 측면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연역과 귀납이론에 의존하며, 소위 논의 방법들(*topoi*)을 적용시키고 있다. 몇 가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증술은 모든 대상에 적용될 수 있지만, 수사술은 특별히 실천적 공적인 문제에 유용하다. 둘째, 변증술은 질문과 답변에 따라 진행되지만, 수사술은 대부분 연속적인 형태로 진행된다. 셋째, 변증술의 몇 가지 사용은 전문가에 의해 인정된 제한된 통념(*endoxa*)을 적용하지만, 수사술은 대중적 통념을 목표로 한다. 넷째, 변증술은 일반적인 질문에 관심을 갖지만, 수사술은 대부분 특정한 주제에 관심을 갖는다.

청자들이다. 앞의 두 경우 소수가 참여하지만, 후자의 경우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목적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논증자는 자기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을 통해서 진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논증은 지식을 주장하거나 무엇인가를 증명하는데 역점을 둔다. 반면에, 변증술에서는 이미 결정된 결론을 인정하도록 논점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둔다. “변증술적 논의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견해(즉, 통념)에서 출발해 주어진 주장(명제)에 모순되는 것(결론)으로 추론해가는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1999: 59). 변증론자는 자신의 성품이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단지 상대방이 필요한 결론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제기하는 데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술에서 화자들은 청자들의 감정적 민감성뿐만 아니라 투영된 성품에 좌우된다.

IV. 공공연설의 유형과 윤리적 정향: 공동선과 사적 이익의 긴장 문제

설득에 있어서 이성과 정념의 상호작용은 삶에 있어서 공적 차원과 사적 차원의 상호작용과 유사하다(Nicols 1987, 672).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술 논쟁에서 주목했던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수사술의 윤리적 정향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아리스토파네스의 비판뿐만 아니라 현실의 부정적 사례를 극복하지 않고서 수사술의 위상을 정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수사술』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리스토파네스에 따르면, 당시의 수사학은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관심만 가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윤리적 · 정치적 공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선입견, 연민, 분노, 비슷한 감정의 자극은 본질적 사실들과 무관하며, 사

건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 호소일 뿐이다”(Rhetoric, 1354a15-19). “일부 국가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재판절차가 모든 곳에서 적용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Rhetoric, 1354a15-19).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술이 진정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 가지 기술(stratenken, oikonomiken, retoriken)은 모두 정치에 포함된다(Nicomachean Ethics. 1094b 3-4, 이후 N. E.로 표기). 기술을 특정 목적에 이용되는 지식체계로 정의할 경우, 정의와 진리의 동인을 발전시키고 대중을 설득시키는 수사술은 정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한 유형의 성품을 지닌 정치인은 다른 유형의 성품을 지닌 국민을 대면하기 때문에, “연설에서 두 가지 유형의 성품은 서로 연관된다. 따라서 『수사술』은 『니코스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의 주제들을 다시 상정하지만 사실상 예기된 청중의 성품에 관심을 갖는다”(Voegelin 1957, 360). 물론 수사술은 윤리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리 및 정치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McKeon 1947, 42).

“수사술은 연설을 듣는 청중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화자는 연설의 목적과 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요소는 화자, 주제, 그리고 청자이다”(Rhetoric, 1358a 35-1358b1). 수사술은 화자의 위상을 강조하는 논증이나 변증술과 달리 청자(들)의 위상을 강조하고 있다. “청자는 과거나 미래의 사안에 대해 결정하는 판관이거나 관찰자이어야 한다”(Rhetoric, 1358b1-4). 화자를 판관으로 규정할 점에도 나타나듯이, 청자는 화자와 어느 정도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자유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¹¹⁾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연설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

11) 『수사술』에서 언급되는 선택의 자유(*liberum arbitrium*)는 제한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판단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 자유 개념은 ‘소극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Burke 1982, 50).

다.

첫째, ‘심의적’¹²⁾ 수사술은 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무엇인가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있다(*Rhetoric*, 1358b). 즉, 심의적 연설은 행위에 대한 권고 또는 억제에 목적이 있다. 권고나 억제는 개인 상담역이나 공공집회에서 연설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진다. 시간적 맥락에서 심의적 연설은 미래와 연관된다. 심의적 연설자는 제안된 행위 과정의 편이성과 유해성을 구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Rhetoric*, 1358b20-25). 그는 선과 관련하여 제안된 행위를 수용하고 악과 관련된 행위를 거부하게 된다.

심의적 수사술에서 권고하는 윤리적 주제는 『수사학』 1권 5-6장에서 언급된다. 심의적 연설자는 행위 과정에서 청중에게 최대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적 삶의 대상과 가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행위의 목표를 행복과 동일시하였으며, 행복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기술하고 있다.¹³⁾ 그는 행복을 미덕과 연계된 번영, 삶의 독립성, 최대 쾌락의 향유 등으로 규정하였다. 행복은 이론적 차원에서 『형이상학』, 그리고 실천적 차원에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핵심 주제이다.

심의적 연설자는 행복에 기여하는 수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심의적 연설자는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에 전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연설자가 의회에서 동료들의 개인적

12) “아리스토텔레스 집단적인 정치적 심의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넓은 의미의 ‘심의’(deliberation)는 의회에서 수행되는 정치적 심의 자체와 법률적 심의를 지칭한다. 반면에 좁은 의미에서 심의는 정치적 심의 자체를 지칭한다. ‘심의적 수사술’(sumbouleutikon)’이란 표현법은 좁은 의미의 심의를 지칭하고 있다”(Abizadeh 2002, 272).

13)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에 나타난 철학적 삶과 정치적 삶의 목표로서 행복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박성우(2005: 111-131)를 참조하시오.

이익과 배치되는 규칙만을 제안할 경우, 동료들은 그 규칙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심의적 연설자는 공동의 목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적 이익이나 관심을 언급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선과 개인적 이익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정치적 삶을 특징짓는 특수한 요소와 보편적 요소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인정하고 있다”(Nichols 1987, 663). 화자와 청자는 공동체 복지에 고뇌를 수반할 행동 방향을 공동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설득 과정에서 누가 승리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따라서 심의에는 다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덕목이 전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우정 또는 연대를 통해 공공이익과 사적 이익 사이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법정 연설에서는 어떤 사람을 공격하거나 변호한다. 법정 연설은 소송 당사자들 사이의 고발이나 변호일 수 있다. 법적인 문제가 주로 사적인 문제라면, 법정 연설에서는 사적인 문제를 공적으로 제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적인 정의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정 연설에서 사적인 것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수사술 비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법정 수사가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비판한 아리스토파네스와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가능성을 분명히 언급하였다.

그는 법정 수사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법은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제정되지만, 법정에서의 결정은 판결하는 사람들이 정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만드는 짧은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배심원들은 우정이나 증오의 감정이나 자기이익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명백한 안목을 상실하고 개인적 쾌락이나 고통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Rhetoric*, 1354b5-15)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정 수사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사학자들을 비판하고 이들을 공적인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며 법정 수사의 결점을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두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 수사술의 적용에 있어서 공공이익이 무시될 수 있다. 소송 당사자들은 공적인 사항에 주목하기는커녕 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두 번째, 재판과정의 공정성은 감정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 정념을 야기하는 수사기술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판관들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는 입법가들보다 훨씬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해결하려고 “재판관에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가능한 한 줄이게 하자”(1354b 10-13)고 권고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기술적(nonartistic; *atechnoi*) 설득수단으로 법·증언·계약·맹세 등을 들고 있다. 법을 설득수단에 포함시킨 것은 당시의 실재를 반영하고 있다(Carey 1996, 33). “성문법이 사실과 대립된다면, 우리는 불문법과 형평성에 기초한 논의를 이용해야 한다”(Rhetoric, 1375b). 이 문장은 법의 엄격한 적용이 반대자에게 유리할 경우 성문법의 권위가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법(*koinos nomos*)을 이용하고 논의의 근거를 형평성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hetoric, 1375a27). 이는 소송 당사자의 사적 이익에 대한 공적인 보장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의례적(epideictic) 연설은 어떤 사람을 찬양하거나 비판하는 것과 관련된다. 미덕과 악덕, 고귀함과 미천함은 칭찬과 비난의 대상이다. 고귀한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며 칭찬할 만한 것이고, 좋은 것이며 즐거운 것이다. 미덕의 부분들은 정의, 용기, 절제, 기쁨, 관후, 관대함, 점잖음, 사리분별, 지혜 등이다(Rhetoric, 1366a35-39). 지적·도덕적 미덕을 언급하고 있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수사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의례적 연설에서 관련되는 용어들은 주로 도덕적 의미로 사용된다.

원래 단순히 설교를 의미하는 ‘epideixis’는 교육적이거나 의례적 맥락에 적절한 연설을 함의하였다(Sheard 1996, 767). 따라서 이 용어는 ‘칭찬과 찬사’¹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공식적인 연설을 의미하였으며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심의적 연설이나 법정 연설에서 청자는 판단자로서 기여하지만, 의례적 연설의 청중은 구경꾼으로서 참여한다. 심의적 연설에서는 수사술적 연역이, 법정 연설에서는 예증추론이 설득에 가장 훌륭하게 기여하지만, 의례적 연설에서는 부연(*auxēsis*)이 설득에 가장 적절한 것이다(Rhetoric, 1368a).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설을 통한 칭찬 또는 찬양이 행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칭찬은 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훌륭한 특성을 부각시키는 말로 이루어진 표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행위를 그러한 특성의 산물로 부각시켜야 한다.”(Rhetoric, 1367b 27-29) 이러한 칭찬은 공적 성격을 띠게 된다.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행위과정을 촉구하는 것과 유사하다”(Rhetoric, 1367b37-8).

아리스토텔레스는 의례적 전제들을 과거에 행해진 것에 대한 칭찬보다 오히려 미래의 행위를 위한 조언에 적용시킴으로써 의례적인 전제들이 어떻게 심의적 전제들로 전환될 수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다. “칭찬은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심의적 목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의적 목적에 따라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이려고 노력해야 한다”(Rhetoric, 1367b32).

14) 칭찬은 칭찬받는 주체의 미덕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는 말이지만(Rhetoric, 1367b33), 찬사는 공적(행적)과 연계된다. 칭찬은 주체의 일반적 성품의 문제이지만, 찬사는 특별한 공적의 문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술의 영역을 주로 공공연설로 제한하고 있지만, 『수사술』은 소통기술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 중요하다. “인간이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말을 함으로써 자신을 구성한다”(Elden 2005, 290). 말을 사용하는 동물이 곧 정치적 동물이라는 정의에서도 나타나듯이, 수사술은 말을 사용하는 동물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제 연설 과정에서 진행되는 심의와 판단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V. 정치적 심의와 판단: 합의와 논쟁, 관여와 성찰

수사술은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정치적 심의와 판단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잘 드러나고 있다. 심의는 『정치학』,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리고 『수사술』의 주요 주제이다. “심의의 주제는 우리의 능력 범위에 있는 것이다”(Rhetoric, 1359a). 심의에서는 일반 대상을 탐구하지 않고 특정한 형태의 대상을 다룬다. 심의는 행동과정을 결정하는 데 그 기능을 지니며 판단으로 종결되고, 행위자는 판단에 기초해 행위를 진행시킨다(Beiner 1983, 92).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이 국내문제와 국제문제를 심의하는 데 어느 정도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연설자는 청중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논쟁에 참여한다. 심의는 의회와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의 심의가 있다. 정치적 심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의 다양한 의미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다룬다. 여기에서는 정치적 심의의 주제들, 발현 양태, 발현 장소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첫째, 정치적 심의의 주요 주제는 무엇인가? 시민조직의 구성원이 함께 심의할 때, 심의는 목적을 실행하는 무엇(수단)과 연관된다.

『정치학』과 『수사술』에서도 같은 견해는 언급되고 있다. 이상국가에서 고문관들은 법의 ‘편이적이고’¹⁵⁾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한다(Politics, 1329a3). 정치적 심의가 편이적인 것을 다룬다면, 그것은 목적 자체보다 특정한 목적과 관련한 정치적 수단들이다. “심의를 목적을 결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을 위한 무엇, 즉 행하는데 매우 편이적인 것을 취급한다”(N. E., 1112b13; Rhetoric, 1358b21; 1362a18-20).

심의의 대상은 배제에 의해 정의된다. 사람들은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문제와 모든 인간 문제를 심의하지는 않고, 단지 자신들의 능력 범위에 있는 것을 심의한다(Mulgan 1999, 196). 따라서 연설자는 심의의 공동 주제, 관습, 법적 용례, 특정한 정치체제의 헌정질서에 친숙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심의하고 정치적 연설자들이 언급하는 주요 ‘주제들’¹⁶⁾은 대략 다섯 가지이다. 정치적 주제들은 ‘재원, 전쟁과 평화, 국가방위, 무역, 그리고 입법이다’(Rhetoric, 1359b19-23). 의도적인 연설자는 국가 재원의 숫자와 범위를 파악하고 늘리거나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의 방위능력, 자국과 외국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방안을 알아야 하며, 국가방위와 입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정치적 연설자는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리스 의회에서 이루어진 심의의 대상과 연관되었다.

『수사술』 1권에서는 정치적 심의에 유용한 정부형태에 관한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 “공적 문제들에 관하여 청중들을 설득시키고

15) ‘expedient’(sympheron)라는 용어는 ‘편이적인’, ‘유용한’, ‘유익한’, ‘이로운’ 등 다양하게 번역된다(Mulgan 1999, 195). 심의적 수사술에서는 정치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이 주제는 윤리적 주제에 해당된다.

16) ‘topic’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topos’는 원래 장소를 의미한다. 수사술에서 ‘topics’는 연설자가 청중들을 설득시키는 유용한 수단을 찾을 수 있는 장소들이다.

훌륭하게 말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조건은 모든 정부형태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들 각각의 관습 · 제도 · 이익을 구별하는 것이다”(Rhetoric, 1365b23-24). 심의적 연설자는 정부의 목적,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습 · 법적 용례 · 이익을 구별하고, 각 정부형태에 고유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

둘째, 정치적 심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각기 어떻게 말하는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공공연설은 설득적이기 위해서 이성을 넘어서 청중의 감정을 고무시켜야 한다. 집단적 심의에서 청자가 화자의 결론을 설득적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여부는 성품, 감정, 논리적 설명에 좌우된다. 하버마스는 심의적 연설에서 보편화 가능한 규범에 기초해 합리적 합의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화자는 설득과정에서 도덕적 탁월성을 드러내고, 공적인 문제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청자에게 보이고 논리적 논증의 명료성을 보여야 한다. 그는 동의란 합리적 주장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청자들의 연민이나 분노에 호소함으로써 비로소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우정을 강조하였다. 공동체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우정에 대한 강조는 인간의 삶에서 갈등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심의는 다양한 갈등의 현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에 직면하여 정치를 가능케 하는 것은 심의에 내재된 관심이다”(Bickford 1996, 399). 따라서 타자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은 수사술의 바로 근거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술』에서 이러한 종류의 관심이 단순히 초라한 것(선동가적 조작수단)이 아니라 정당하고 합리적인 정치행위에 본질적이라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Bickford 1996, 411).

그러나 설득과정에서 화자는 청자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 일방적인 입장을 견지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심의는 종종

논쟁에 참여하게 된다. 정치적 연설자는 공적인 미덕을 청자들에게 드러내야 한다. 정치적 연설자는 자신의 양식, 훌륭한 도덕적 성품, 호의라는 미덕을 보여야 한다. 그는 청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궤변가와 자신을 차별화해야 한다. 궤변가들은 개인적 선이 그의 설득 능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훌륭한 정치적 연설자는 언어행위, 즉 연설을 통해 자신의 특이성을 드러내야 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궤변가들과 논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정치적 심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정치적 심의는 공공 영역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실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정치적 심의는 전제정치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가의 자질을 증진시키는 수단이다. 수사술은 의회 · 아고라 · 시장과 같은 공적 공간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한다. 이러한 공간에 참여하기 위한 수사술 교육은 격렬한 논쟁 기술, 친근한 설득,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논쟁을 통한 기쁨과 공공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논쟁에 대한 명백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¹⁷⁾ “정치적 논쟁에서 판단을 내리려는 사람은 자신의 중대한 관심사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있다.”(Rhetoric, 1354b30) 이렇듯, 논쟁은 정치에 관한 그의 견해에 핵심적이다. 심의(bouleusis)는 500인 협의회(boule)에서 유래되었고 공공정책을 위한 집단적 토론과 논쟁에 전형적인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Mulgan 1999, 195).

정치적 심의는 공공영역의 유지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 합의의 정신이 강조되지만,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논쟁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 공공영역의 원초적 형태

17) 멀간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상반된 두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합의의 우위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른 한편 최근 연구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들 사이에 윤리적 다양성을 강조하고 정의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를 아리스토텔레스적 공동체의 자연적 측면으로 인정하고 있다(Mulgan 1999, 191-207).

를 제시하고 있다. 논쟁적 공공영역은 논쟁적 · 수행적 공공연설의 개념을 수용한 아렌트에 의해 부각되었지만, 합리적 공공영역은 주로 현대 심의민주주의에 의해 부각되고 있다.

심의와 판단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¹⁸⁾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심의에서는 다수의 행위자들이 참여하며, 이러한 공동활동이 바로 정치행위이다. “행위자들은 공동의 주장을 판단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세계를 공유하며, 정치적 존재로서 자신들의 판단 대상은 현상공간을 밝혀주는 말과 행위이다”(Beiner 1982, 93). 따라서 언어를 매개로 한 심의 내용은 판단의 대상이 된다. 『수사술』에서는 현상공간을 밝혀주는 공공연설에 관한 판단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수사술』은 정치적 판단에 관한 연구이다(Beiner 1983, 85). 『수사술』은 정치 연설자에게 가장 적합한 설득 수단을 선택케 하는 판단의 특성들을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의 판단과 설득 과정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술』에서 판단 문제는 청자의 역할과 연계되어 있다. “청자는 구경꾼(*theoros*)이거나 판관(*kritēs*)일 필요가 있다.... 민주적 의회의 구성원은 미래의 사건들을 판단하는 사람의 표본이며, 배심원은 과거를 판단하는 사람의 표본이다”(Rhetoric, 1358b). 이와 같이, 정치적 판단의 시제와 법률적 판단의 시제는 구분된다. 정치적 판단은 미래 시간과 연관되지만, 법률적 판단은 과거와 연관되기 때문이다.¹⁹⁾ 아리스토텔

18) 바이너는 여러 가지 유형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지각적 판단(‘이 탁자의 색깔은 갈색이다’), 미학적 판단(‘이 그림은 아름답다’), 역사적 판단(‘이 사건은 상서롭다’), 법률적 판단(‘이 사람은 유죄이다’), 해석학적 판단(‘원전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정당화된다’), 도덕적 판단(‘이것은 행하기에 옳은 것이다’), 정치적 판단(‘이 정책은 정당하며, 필요하고 여러 상황에서 권고할만하다’)으로 구분하고 있다(Beiner 1983, 6). 『수사술』에서는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을 언급하고 있다. 아렌트의 판단이론에 관한 행위자 및 관찰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Yar(2000, 1-27)를 참조하시오.

레스의 심의 개념은 미래시제와 연관되므로, 심의는 정치적 판단과 연계된다.

『정치학』 제2권에서도 밝혔듯이, 시민집단의 판단은 소수의 현명한 개인의 판단보다 우월할 수 있다. 『수사술』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이해하는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람, 가장 유능한 사람들은 선한 것, 즉 더 좋은 것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다른 모든 판단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이다”(Rhetoric, 1364b11-15). 『정치학』 제3권에서는 전문가의 판단과 다수의 공동 심의에 의해 행사되는 실천적 지혜를 대조하고 있다. 심의는 실천적 지혜와 판단을 연결시키는 등식에서 중요한 용어이다. 실천적 지혜를 갖춘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심의는 행위과정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심의는 판단으로 종결되며, 실천적 행동가(*phronimos*)는 그러한 판단에 기초해 행위를 추진한다. “실천적 지혜는 명령을 내린다. 실천적 지혜는 우리가 행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반면에, 이해는 판단을 내린다.”(N. E., 1143a5-10) 이해는 판단하고, 실천적 지혜는 명령을 내린다. 행위자는 정치공동체 내에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소통 과정에서 심의하고 판단하게 된다.

“수사술의 임무는 짧은 순간 복잡한 논쟁에 참여할 수 없거나 오래 지속되는 연쇄적인 논리적 설명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의 연설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를 인도할 기술이나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19) 아렌트의 경우, 성찰적 판단은 과거와, 실천적 판단은 미래와 각기 연관된다. 성찰적 판단은 관찰자의 판단과 연계된다. 이때, ‘판단’은 상상 속의 타자들과 나누는 대화이며, 대리적 사유로 정의될 수 있다. 대화의 상대가 다수라는 점에서 판단은 정치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실천적 판단은 행위자의 판단과 연계된다. 이때, 판단은 공공영역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 바로 정치적 능력이다.

우리가 심의할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다”(Rhetoric, 1357a1). 이 문구에 대한 해석에서 판단의 역할을 폄하하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심의는 판단의 임무이기도 하다. 『수사술』에서는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 탐구를 분명히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자의 목적은 판단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기보다 반응을 통제하고 판단을 지시하는데 있다(Walzer 1997, 47). 성찰적 판단은 현상세계로부터 이탈한 이후 진행되지만, 실천적 판단은 시공간적 제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정치적 판단은 특정한 가능성의 맥락 속에서 추구할 가치가 있는 집단적 삶의 형태에 관한 판단이다. 그리고 “정치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을 전제하며,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teinberger 1993, 286). 정치적 심의는 판단에서 정점에 도달한다. 정치적 연설자는 판단의 특성들을 통해 가장 적절한 설득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술의 탐구가 정치적 판단에 관한 탐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 “정치적 논쟁에서 판단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중대한 이익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있다”(Rhetoric, 1354b30).

적절한 설득수단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도덕적 목적을 가진 사람이며,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판단을 내리는 청자들에게 자신을 추천한다. “나는 행하였다.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었다. 사실은 여러분 앞에 있다. 나는 여러분의 판단을 요청한다”(Rhetoric, 1420b2-5). 이 주장에도 나타나듯이, 연설에서 제시한 사례의 표출은 판단으로 나타난다.

정치적 판단은 행위를 위한 마지막 단계이다. 정치적 연설자는 자신의 성품을 화자들에게 드러내려면 판단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언행일치는 품성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언행위는 수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행동과정을 결정하는 심의는 판단으로 끝나지만, 행동가는 이제 행위를 진행시켜야 한다. 그러나 심

의과정에서 진행되는 판단은 현상공간에 제약을 받는다. 심의가 미래의 행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정치적) 판단 역시 미래와 연관된다. 반면에, 성찰적 판단은 현상세계로부터 이탈할 때 진행되는 정신활동으로서 과거와 연계된다. 양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이한 정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판단에서는 ‘관여’와 ‘성찰’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

VI. 마무리하기: 수사(술)적 정치의 현실적 함의

수사술의 역할에 관한 논쟁은 고대 이래로 존재해 왔다. 오늘날 수사술을 공허한 말, 잘못된 주장, 찬박한 감정에 대한 호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수사술이 도덕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정치적 극단주의나 인종주의에서 악용되는 수사술에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사술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 메디슨은 미국독립운동에서 공적 의견을 조직화하였다. 수사술은 정치적 난관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고대 아테네 참여민주주의의 정치적 성과는 정치와 수사술 사이의 결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술』에서 이러한 연계를 공식화하였다. 정치와 수사술의 고대적 결합은 실천적 기술로서 정치에 대한 강조에 있어서 특이하다. 현대 정치학은 권력과 연계된 제도관계의 구조적 · 경제적 · 법적 측면들을 강조하지만, ‘수사술적 정치’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가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수사술은 말을 사용하는 동물의 정치적 위상을 고양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조작적 또는 상투적 언어로서 ‘수사술’이란 일반적인 사용을 극복함으로써 정치적 실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수사술』을 네 가지 차원에서 조명하였다. 첫째, 수사술 논쟁의 정치존재론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삶에서 수사술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하였다. 둘째, 에토스, 파토스, 그리고 로고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감정의 인지적 신념뿐만 아니라 진정한 로고스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인식론적 입장을 부각시켰다. 즉, 의사소통에 있어서 적절한 설득수단이 왜 필요한가를 제시하였다. 셋째, 공공연설의 윤리적 정향을 고찰하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정당한 공존을 강조하였다. 넷째, 정치적 심의와 정치적 판단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를 밝혔다.

오늘날 정치와 언어의 연계성에 대한 이론적 세련화 유형은 『수사술』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심의(토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현대 정치이론가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심의 개념에서 정념의 요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아렌트 역시 언어행위의 조화와 경쟁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공공연설 또는 공공영역에서 감정이 차지하는 면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부각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수사술적 정치를 이해하고 심화시키는 데 있어서 『수사술』은 새로이 재조명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단순한 ‘정치’참여가 아니라 ‘참여’정치가 활성화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언어정치(대화 · 논쟁 · 심의)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의사소통의 양상과 수단은 그리스 시대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화되었다. 그런데 한국정치의 경우, 시민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참여 기제 속에서 적절한 설득수단과 그 요건은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수사술의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참여정치는 시민들의 정치적 삶을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정치와 심의의 연계성, 수사술과 정치의 연계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참여정치는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술』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우리들에게 중요한 정치적 통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 참고 문헌 >

- 노희천, 2001,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술』에 나타난 ‘ΠΙΣΤΙΣ’ (설득수단)에 대하여」. 『철학연구』 제80집.
- 노희천, 2005,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수사술과 변증술의 대응관계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 제95집.
- 박성우, 2005, 「행복(Eudaimonia)의 정치: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에 나타난 철학적 삶과 정치적 삶의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 아리스토텔레스, 1999, 김재홍 옮김, 『소피스트적 논박』. 서울: 한길사.
- 아리스토텔레스 외, 1989, 최현 역, 『그리스 · 로마 희곡선』 서울: 범우사.
- 홍원표, 2004, 「언어행위와 공공영역: 대화, 논쟁, 이야기하기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집.
- Abizadeh, Arash, 2002, “The Passions of the Wise: Phronêsis, Rhetoric, and Aristotle’s Passionate Practical Deliberation.”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56.
- Arendt, Hanna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ristophanes, 1998, *Clouds*. ed. Jeffrey Henderson.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Aristotle, 1988,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9: Rhetoric*. Chicago and London: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 _____, 1988,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9: Nicomachean Ethics*. Chicago and London: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 _____, 1991, *Aristotle on Rhetoric: A Theory of Civic Discourse*. trans. by George A. Kennedy. Oxford: Oxford

-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The Nicomachean Ethics*. trans. by A. K. Thomson. London: Penguin Books
- _____, 1988,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9: Politics*. Chicago and London: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 Aristophanes, 1998, *Clou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einer, Ronald, 1982, “Hannah Arendt on Judging.” in Hannah Arendt. *Lectur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Ronald, 1983, *Political Judg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ickford, Susan, 1996, “Beyond Friendship: Aristotle on Conflict, Deliberation, and Attention.” *The Journal of Politics*. vol. 58. no. 2.
- Brogan, Walter, 2005, *Heidegger and Aristotle: The Twofoldness of Being*.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Burke, Richard, 1982, “Politics as Rhetoric.” *Ethics*. vol. 93 no. 1.
- Carey, C., 1996, “Nomos in Attic Rhetoric and Oratory.”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vol. 116.
- Corbet, Edward P. J., 1984, “Introduction.” trans. Rhys Roberts and Ingram Bywater. *The Rhetoric and the Poetics of Aristotle*. New York: Modern Library College Editions.
- Elden, Stuart, 2005, “Reading Logos as Speech: Heidegger, Aristotle and Rhetorical Politics.” *Philosophy and Rhetoric*. vol. 38. no. 4.
- Lienhard, Joseph T., 1966, “A Note on the Meaning of Pistis in Aristotle’s Rhetoric.”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vol. 87, no. 4.
- McKeon, Richard, 1946, “Aristotle’s Conception of Language and

the Arts of Language." *Classical Philology*. vol. 41. no. 4.

_____, 1947, "Aristotle's Conception of Language and the Arts of Language." *Classical Philology*. vol. 42. no. 1.

McAdon, Brad, 2001, "Rhetoric is a Counterpart of Dialectic(Ἡ ῥητορικὴ ἔστιν ἀντίστροφος τῆς διαλεκτικῆς)." *Philosophy and Rhetoric*. vol. 34, no. 2.

Mulgan, Richard, 1999, "Debate: Aristotle, Ethical Diversity and Political Argument."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vol. 7, no. 2.

Murphy, Charles T., 1938, "Aristophanes and the Art of Rhetoric."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vol. 49.

Nichols, Mary P., 1987, "Aristotle's Defense of Rhetoric." *The Journal of Politics*. vol. 49. no. 3.

Plato, 1961, *Gorgias*. eds. Edith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 1961, *Phaedrus*. eds. Edith Hamilton and Huntington Cairn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Ramsey, Ramsey Eric, 1999, "A Hybrid Techne of Soul?: Thoughts on the Relation between Philosophy and Rhetoric in Gorgias and Phaedrus." *Rhetoric Review*. vol. 17, no. 2(Spring).

Remer, Gray, 1999, "Political Oratory and the Conversation: Cicero versus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al Theory*. vol. 22, no. 1.

Ronald, Kate, 1990, "A Reexamination of Personal and Public Discourse in Classical Rhetoric." *Rhetoric Review*. vol. 9, no. 1.

Ruderman, Richard S., 1997, "Aristotle and the Recovery of Political Judgmen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 2.

Sheard, Cynthia Miecznikowski, 1996, "The Public Value of Epideictic Rhetoric." *College English*. vol. 58. no. 7.

Steinberger, Peter J., 1993, *The Concept of Political Judgment*.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trauss, Leo, 1980, *Socrates and Aristophanes*. Chicago: Midway Reprint.

Triadafilopoulos, Triadafilos, 1999, "Publics, Speech, and the Art of Persuasion: Toward an Aristotelian Conception of the Public Sphere."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1. no. 3.

Voegelin, Eric, 1957, *Order and History: Plato and Aristotle*. Baton Rouge and London: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Walzer, Arther, 1997, "Aristotle' Rhetoric, Dialogism, and Contemporary Research in Composition." *Rhetoric Review*. vol. 16, no. 1.

Yar, Majid, 2000, "From Actor to Spectator: Hannah Arendt's 'Two Theories of Political Judgment.'"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vol.26, no. 2.

Language and Politics in Aristotle: - Focusing on Interpreting On *Rhetoric*

Hong, Won-py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The rhetoric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political status of the political animal as *zoon logon echon*. As Aristotle had contributed to negate the negative image of the rhetoric as the operative speaking, *On Rhetoric* provided the basis of realizing rhetorical politics in the public sphere. As a part of efforts to illuminate its contemporary meanings, this paper emphasizes the following four points.

First, the debate over the rhetoric has politico-ontological meanings, as regards the critique against Aristophanes and Plato, because the rhetoric really contributes toward activating the political life. Second, we can consider the importance of epistemic attitudes concerned with ethos, pathos, and logos in public speaking. Third, we can elucidate the justified coexistence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in political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thical orientation of public

speaking. Fourth, Aristotle gives us the bas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 of political deliberation and judgment.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On Rhetoric* provides various data for the theoretical articulation on the relations between language and politics. Especially, this book offers insights which contribute to understanding and realizing the rhetorical politics in our times.

Keywords: Aristotle, Rhetoric, *Pisteis*, Public Address, Deliberation, Judgment